

광주폴리의 현재,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효원(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광주의 어반 폴리(Urban Folly)

광주 어반 폴리(Urban Folly)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디자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광주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담은 도심공간의 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활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폴리(Folly)의 사전적 의미는 기능 없이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광주폴리는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맥락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보행자와 함께 소통하며 도시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 새로운 형식의 공공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한다.”¹⁾

광주의 폴리는 ‘새로운 공공디자인의 형식을 지향하는 기능 없는 건축물을 통해 문화거점을 조성하고 디자인도시 기반을 구축’ 정도로 그 목적을 규정할 수 있다.

도심재생, 혹은 도시디자인은 동의어다. 어차피 재생을 한들 디자인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재생의 과정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민에 대한 고려 등은 빠질 수 없다. 문화도시, 디자인도시를 지향하지 않는 도시란 없다.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문화’라는 열쇠어 또한 하나마나한 소리이며, 없는 자들의 열등감이다. 그냥 밥 먹은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주변에 편재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폴리가 아니라 어반 폴리(Urban Folly)라고 명명한 기획자의 의도이다. 도시 안에 각각의 시설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관계와 그로 말미암은 거점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 2012 광주폴리 현상설계 공모 지침

폴리(Folie)와 폴리(Folly)

기획의 의도를 밝혔고, 이미 지어졌으며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차이는 적지 않다.

폴리(Folie)의 일반적인 정의는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널리 지어진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흔히 귀족들이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주로 바캉스를 보낼 목적으로 지은 다수의 건축물들 중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팔라디오식 여름 별장에서 건축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으며 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음악회를 열었던 비교적 소규모 바캉스용 주택형식’이라 시작되었다. 현재에 와서는 폴리(Folly)는 정원, 혹은 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혹은 타워형태를 띤 건조물로서 잘 디자인된 것을 의미한다.²⁾

하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폴리의 시작은 프랑스 파리의 라 빌레트 공원 국제현상공모에 제출된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 1944~)의 계획안에서 사용된 폴리(Folie)이다.

라 빌레트 공원 프로젝트는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도축장으로 사용하던 55헥타의 땅에 새로운 형식의 도시 공원을 만들어보자는 기획된 것이다. 이 공원에서 츠미가 디자인 한 폴리는 공원 전체에 반복되어 있는, 빨강으로 채색된 구조물이다. 공원 전체를 망라하는 120m 간격의 격자 체계의 절점에 세워져 있으며, 폴리 각각의 기본 모듈은 10.8m 규격의 입방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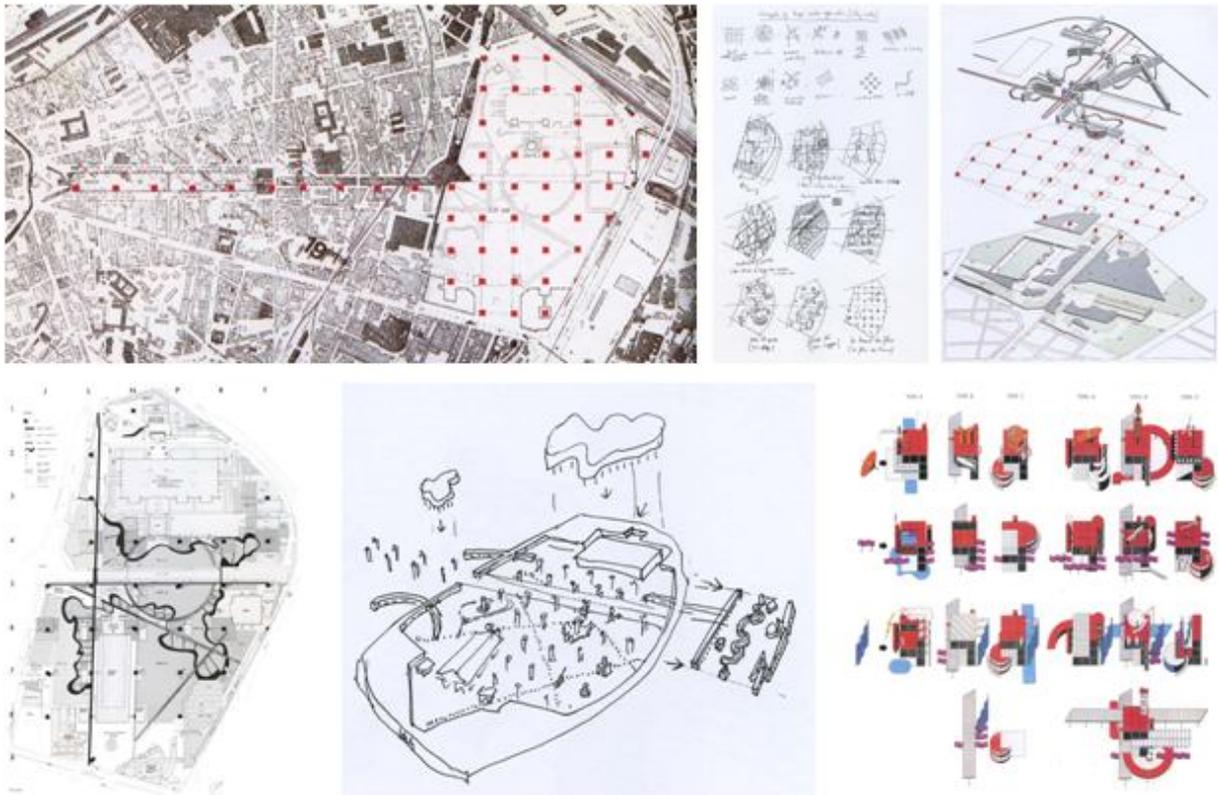
2) In architecture, a folly is a building constructed primarily for decoration, but either suggesting by its appearance some other purpose, or merely so extravagant that it transcends the normal range of garden ornaments or other class of building to which it belongs. In the original use of the word, these buildings had no other use, but from the 19th to 20th centuries the term was also applied to highly decorative buildings which had secondary practical functions such as housing, sheltering or business use.-<http://en.wikipedia.org/wiki/Folly>

츄미(Tschumi)의 폴리(Folie), 그리고 라 빌레트 공원(La Villete Park)

커다란 대지를 디자인하라고 하였을 때, 그 땅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어떻게 형상을 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축가, 혹은 조경가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시작할 때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츄미의 폴리는 라 빌레트 공원 프로젝트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대지 전체를 조직하는 수단이다.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인 점-선-면을 이용하였다. 공원 내에서의 보행을 위한 산책로들은 선(線)의 요소가 되고, 공원 내 광장이나 스포츠 그라운드 등이 면(面)적 요소가 되어, 빨간 색의 폴리는 점(点)이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시각적 사건'을 만드는 즐거움을 준다.

이 이후 우리가 폴리라 명명하는 이 구조물들은 카페로 사용하든지 공원 전망대로 사용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미완성 형태들이다.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츄미가 추구하는 행위, 프로그램, 이벤트(event)의 다채로움이나, 나아가 해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디자인 행위는 오직 그만의 것이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한다.



광주폴리(Folly)에서 폴리의 정의

폴리의 정의를 위해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일단은 건축도, 조각(혹은 조형물)도 아니다. 요즘 논의되는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다. 기존의 공공디자인의 범주가 과거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를 넘어섰다고 해도 그렇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아우르거나 조직하는 건축적 조형물’이라 해보자.

이 말에는 일정 수준의 기능을 담는다는 것을 통해 일반의 조각과 구분되며, 공공의 대지에 지어져 조형적으로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건축물과 구분된다. 일정 구역의 잘 디자인된, 그리고 특정의 기능이 부여된 스트리트퍼니처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광주 폴리는 다음 네 가지 층위로 정리될 수 있다.

1. 일정 공간을 지배하는 조형물-object : 무어라 해도 대지 위에 서 있는 특정 object는 그 자체의 잠재력에 의해 일정 영역을 지배하고, 그 영역 안에서 미적 영향력을 갖는다. 흔히 보는 기념조형물, 예술 조각품들이 그렇다.
2. 행위, 그리고 이벤트의 유발자적 역할 : 대개의 사물은 그 형상에 의해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자극하거나 유발하고, 그 행위의 배경이 된다. 그 행위는 ‘공간’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공간의 쓰임새를 곧잘 알아차리기도 하고, 뜻밖의 방법으로 사용해 내기도 한다. 그 쓰임새는 너무 넓다. 이 점에서 폴리는 조형물과 확연히 구분된다.
3. 도시 혹은 대지를 조직하는 요소 : 넓은 공간, 도시나 공원,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폴리를 사용해서 조직해 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오벨리스크와 분수 등을 사용하여 독특한 도시 구조를 만들어낸 로마에 사용되어 있다. 이 방법에 폴리를 사용한 것은 쉼의 성과다.
4. Good Design :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좋은 디자인은 기본이다. 건축물이건, 조각이건 그것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간혹, 키치 혹은 추함이 미학적 장치로 사용되긴 하지만, 도시디자인의 차원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 모두는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보는 놀라운 눈을 누구나 가졌다는 것이 미학의 기본이다.

2011 광주폴리 프로젝트

※폴리를 표기하는 번호는 광주시의 자료 순서를 따른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 속에 있는 자산을 토대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했던 2011 광주폴리 프로젝트들은 앞에서 논의한 폴리의 정의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1. 일정 공간을 지배하는 조형물-object : 근본적으로 공간이 적절치 않았다. 읍성터라는 역사적 선(線) 위에 이미 새로운 도시 구조가 덧씌워진 상태에서,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체계 속에서 좁디좁은 인도에 배치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다. 그 대지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②전남여고/플로리안 베이겔/서원문 계등, 일종의 문(門) 역할을 수행할 ⑤충파/피터 아이젠만/99칸이 그러하다. 조형물은 그 대상이 점유한 위치, 그걸 바라볼 적절한 간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③중앙초교/나더 테라니/광주 사람들은 환경조형물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⑥광주세무서/정세훈, 김세진/열린 장벽은 일종의 파고라의 기능은 없는 파고라 형상의 디자인이다. 이 분류에 ④금남로공원/자에라폴로/유동성 조절도 포함할 수 있다.

2. 행위, 그리고 이벤트의 유발자적 역할 :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①장동사거리/후안 헤레로스/소통의 오두막은 작은 쌈지 공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⑧구시청사거리/도미니크 페로/열린 공간과 ⑨문화전당/프란시스코 사닌/광주사랑방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긴 하다. 상대적으로 ⑩대성학원/오시하루 츠카모토/잠망경과 정자는 지하에 있어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아시아문화 전당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기발랄하다.

3. 도시 혹은 대지를 조직하는 요소 : 이 부분은 개별 건축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기획자에 의해 자리 잡았을 각 위치는 어찌 되었건 광주의 거의 유일한 역사적 선(線)을 처음으로 드러낸 건 사실이다.

4. Good Design : ‘세계적인 건축가’라는 수사 때문에 폴리들 디자인의 연관성은 애초에 논외이고, 다양성이 핵심이었다. 당초 그게 목적이었다면 성취하였다. 그들은 일종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혹여 그들의 작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탓이라고 자책할 일이다. 시간과 예산 핑계를 대며 자위해도 그만이다.

광주라는 조직하는 폴리

라 빌레트 공원에서 폴리의 역할이 주변 도시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과거의 도축장을 공원으로 만들면서 대지 전체를 조직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했다.

2011 광주비엔날레에서 어반 폴리라 하며 굳이 어반(Urban)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광주의 도시 맥락 속에서 광주를 이해하게 하는,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폴리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광주는 일제 강점기에 도시의 기본적 프레임을 갖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흔히 보이는 격자 체계이다. 이 격자의 도로 체계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문화의 삶의 측면에서 재미가 없다.

근대도시 성립 이후, 도시의 역사 및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 광주의 자산은 몇 안 된다.

읍성터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복개되어 있지만, 그걸 걷어내고 복원했을 때 여러 가지가 기대되는 동구의 동계천과 북구의 용봉천이 있다. 과거 광주시청이 있던 태봉산과 경향방죽도 논의의 대상이다. 요사이 별 시답지 않은 꺼리라도 찾아서 도시 마케팅의 차원으로 이용하는 세태를 보면, 이만큼도 실은 적지 않다.

광주폴리는 광주의 읍성터를 따라서 배열되게 기획되었다. 본의 아니게 근사한 5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전당과 오묘하게 겹쳐 있다. 하늘에서 보는 형상으로 보면 그럴싸하다. 하지만, 그걸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본다고 하면 그 폴리를 통해 읍성터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 많은 도시 구조물 속에 하나일 뿐이다.

아쉬운 것은 광주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이었을 읍성터를 너무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만져버렸다는 점이다. 무엇인들 다시 되돌릴 수 없지는 않겠지만,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이다. 현재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손대지 않고 가만있는 것도 정답일 수 있다.

스타 마케팅(Star Marketing)

별 다른 자산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스타의 명성에 기대는 것, 좋다. 이런 방식으로 자주 논의되는 것이 빌바오의 문화도시 성공사례이고, 그 대표적 아이템이 구겐하임미술관이다. 당시 빌바오는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구겐하임미술관의 분관 유치에 하며, 모든 비용을 대고 수익도 가져가게 하고 그 전권을 구겐하임재단에 일임하였다. 선택된 건축가는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이다. 그는 당대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 몇 안 되는 건축가이다. 이번에 참여한 피터 아이젠만도 그 범주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의 ⑤충파/99칸은 그가 해왔던 맥락 안에서 디자인된 것이다. 워낙 큰 건물을 설계하는 그이고 보면, 참여해준 것만도 고마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주변의 상인과의 마찰로 원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②전남여고/서원문 제등의 플로리안 베이젤(Florian Beigel)은 한 때, 인기를 끈 건축가이다. 그의 개념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대지의 형상과 잠재력이 건축물의 결정하는, 나아가 대지와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그의 기대와 달리 그는 유형학적인 선택을 하고, 그 대지에 석등이 있었다는 사실로 유사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그가 그간 보여준 설계안과 비교하여 의아하다.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Alejandro Zaera-Polo는 그의 아내와 함께 참여한 요코하마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름을 얻은 건축가로서 ④금남로공원/유동성 조절의 내용은 그의 건축언어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나름 독특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는 금남공원의 배경이 될 것이다. 금남로 4가, 그 한쪽 귀퉁이 지하의 공원이라는 공간구조 속에 한쪽을 배타적으로 막는 방식은 생각해볼 일이다.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이화여대 ECC 등으로 유명한 건축가이다. ⑧구시청사거리/열린 공간은 사거리의 중심에 정자 모양을 재해석한 형상의 구조물이다. 우리의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과 그것을 재해석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레나 형태감과 차이가 나는 것이 당황스럽다. 의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기획된 폴리의 의도에 일정 부분 부합된다.

광주폴리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제언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문화도시 구축, 어떤 말이라도 좋다.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수많은 이들의 정성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많은 것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면,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그것을 자극하고 유발할 하나의 동인으로 유효하다.

도시를 디자인함에 있어 도시를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광주라는 도시가 이미 작지 않다는 점에서 도시 전체로 보면 여러 틀이 동원될 수는 있다. 광주 구도심에서의 읍성터의 복원은 예상 가능한, 언젠가는 사용했을 중요한 선적 틀이었다. 읍성터라는 무형의 선을 점적 요소인 폴리를 통해 드러내려는 시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그 역사적 선의 중요성에 비추어 2011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말하기 쉽지 않다.

이미 완성된 것들에 대해 공과, 호불호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다. ‘이게 뭐냐’는 말에서부터, ‘왜 하니?’까지 다양하지만, 별 말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다. ①장동사거리/후안 헤레로스/소통의 오두막이 그러한데, 인도 한 편에 잘 디자인된 조형적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안의 벤치에는 말 그대로 휴식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밤에는 더 좋다. 이 사례가 앞으로 폴리의 중요한 선례일 수 있다.

도시를 조직하는 등의 거창한 구호보다 도시의 곳곳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방식, 그 방식에 능력이 있는 작가가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직공원 예술프로젝트도 참고할 사례이다.

폴리를 통해 도시 공간에 ‘Good Design’의 물건을 축적해 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라도 달성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미학적 완성은 약간의 선호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개 동의할 수준에서 결정된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촌부가 했더라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건 도시를 새롭게 조직해내는 과정은 누군가에 의해, 분명히,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들의 축적이 도시의 역사다.